

강원경제인 300명 화합 미래전략 모색

강원경제인들의 도약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펼쳐진다.

창간 71주년을 맞는 강원일보사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22일부터 이틀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16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경제인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경기 부진 극복방안, 강원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는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개막식

22일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개막
골프대회 등 각종행사 마련 눈길

과 함께 제10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첫 제정한 창조기업상을 비롯해 연구개발상, 건설혁신상, 창업성공상, 특별상 등 각 부문 수상자 5명이 총 7,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 후에는 강원경제포럼이 열려 강원랜드와 중소기업 상생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

로 진행된다. 행사 이틀째인 23일에는 조찬강연과 강원경제인 골프대회가 펼쳐진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하이원CC에서 화합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강원경제인 골프대회'가 남성부와 여성부로 나눠 열린다. 1박2일간 진행되는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의 숙박은 무료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강원일보사 경제부((033)258-1340~2)로 하면 된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

최삼규 건설협회장 도 방문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중앙회장이 도를 방문했다.

최 회장은 12일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도회에서 추진한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및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운기자



도건설협회는 12일 오전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초청, 강원건설산업 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하겠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초청간담회

본회차원 현장 애로점 해결 약속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강원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2일 오전 춘천 고산가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초청, 강원건설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도회장은 이날 강원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회에

서 추진한 사업과 계획을 설명하고 본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 회장은 “강원건설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속에서도 도회 회원사들은 강원경제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물량부족과 부족한 공사비 적용 실태 등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삼규 회장은 “강원건설산업의 열악성을 본회도 잘 알고 있다”며 “강원도회와의 협조를 통해 강원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은복 rio@kado.net

7월 국내건설수주 14.7兆... 작년보다 43% '↑'

7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4조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 3388억원)보다 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수주액(13조9118억원)과 비교해 6% 늘어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7월 국내건설 수주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7월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4조5637억원으로 75.9% 증가했다.

토목은 발전설비, 도로, 항만 공종 등을 중심으로 57.2% 증가했다. 주요공사는 △주한미군시설사업 Parcel2B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다.

건축은 공공주택 신축 등을 중심으로 105.1% 증가했다. 주요공사는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1604가구) △김해울하2B-1블



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10조1836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토목은 도로(민자) 및 토지조성 공종을 중심으로 140.2% 늘었다. 주요공사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다.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 및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25.8% 증가했다. 주요공사는 △화성동탄 A70, A71, A72아파트 신축 △수원영흥공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최삼규 건협 회장, 인천시회·강원도회와 간담회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2일 오전 인천 웨라톤호텔에서 건협 인천광역시회와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덕인 인천광역시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시회는 최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 건설산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을 위해 진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협회 주요사업

을 보고하고, 건설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회장은 이어 같은 날 오후 춘천 고산가에서 건협 강원도회와도 건설업계 현안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등 지역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산업의 발전 및 회원사 권익 향상에 기여한 최 회장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협회 주요사업 및 현안을 논의했다.